

# 새로운 글로벌 시대의 대학교육

이기준 서울대학교 총장



## 연자 약력

미국 워싱턴대학교 대학원 박사  
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 및 전국 공과대학장협의회회장  
전 한국공학기술학회 회장  
전 대통령교육개혁위원회 위원 / 대학교육 소위원회 위원장  
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장  
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현, 서울대학교 총장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정보가 사회발전을 이끌어 나갈 지식기반형 경제사회,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집약형 산업사회, 다원화된 인간활동과 조직행위가 기술진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기술연계형 복합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문, 기술, 문화 등 지식 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영역에서 획득된 지적 자본의 양과 질이 한 국가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결정하게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지식생산과 문화가치의 창출은 우리나라 대학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는 교육기능을 통한 고급인력의 양성과 연구기능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봉사 기능을 통한 전문지식의 공급을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의 한국대학들은 이러한 기능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학육성정책의 취약, 과학기술정책의 오류, 교수인력의 부족, 교육예산의 영세, 교육시설부족과 장비의 노후화 등 누적된 문제점들과 함께 대학간, 지역간 및 학문분야간 균형적 지원요구에 부디쳐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대학들이 아시아권에서조차 상위그룹에 속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발전의 수준은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은 잘 아는 사실이며 과학기술력 강화를 위한 국가간의 경쟁은 냉엄하게 존재합니다. 과학기술력을 통한 국가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사과정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고급두뇌 양성을 위한 대학원과정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어느 한 대학 또는 한 기업의 힘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국가 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업계로부터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대학들은 선진 외국대학에서 생산된 지식을 수입하고 전수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정도로, 스스로의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고 정보와 문화를 해외로 송출하는 첨단 연구기관의 위상을 확립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 경쟁시대에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의 신속한 도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창출한 선진지식과 기술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어야만 선진대열에 진입하게 되고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는 최근에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대학원을 중점지원하여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nformation Technology 와 Biotechnology 분야가 핵심에 놓이게 된 것은 세계적 흐름과 궤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경쟁력의 강화와 생산성의 추구 차원에서 학사조직의 구조조정이란가 새로운 시대 상황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평소에 21세기와 글로벌시대에 맞는 가치관, 인간관, 그리고 세계관을 지닌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오늘날의 대학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세계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구비하고, 교육과 연구의 국제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체제를 정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